산업통상부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2026. 6. 14.(일) 11:00 < 6.15.(월) 조간 > 배포 2026. 6. 12.(금)

전기·전자 표준 글로벌 수장들, 서울에 모인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이사회, 6월 17~18일 양일간 한국에서 개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이사회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IEC는 ISO, ITU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세계 3대 국제표준기구 중 하나로,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개발·관리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기구이다. IEC 이사회(IEC Board)는 IEC의 운영 방향과 중장기 전략, 회원국 협력,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전기·전자 국제표준화 활동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이사회 주간에는 6월 15일 국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이해관계자와 IEC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리고, 6월 16일에는 IEC 회장단 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IEC 이사회에서 IEC의 주요 정책방향과 미래 표준화 전략, 회원국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IEC 핵심 의사결정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에너지, AI 등 한국의 주요 산업·기술 역량과 국제표준화 기여 성과를 주요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문일주 기술혁신본부장은 IEC 시장전략이사회(MSB) 이사로 선출되어 올해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향후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발굴하는 IEC의 주요 정책이사회로, 이번 진출을 통해 전력·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IEC 내 한국의 표준화 정책 참여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IEC 이사회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의 핵심 무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과 국제표준화 기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산업계 전문가의 IEC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기술이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국제표준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배진석 (043-870-5350)
		담당자	사무관	채송화 (043-870-53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